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U대회 3년간 시비 3700억... 재정 악화 우려”

재원 조달책 마련해야-조영표 시의원

조영표(민주·남구 1) 광주시의원

원은 이날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2015 광주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대책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U대회 총 사업비는 817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609억원, 시비 4330억원, U대회 조직위 자체 수입 1232억원이다.

광주 U대회 사업이 본격 시작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15억원(국비 417억원, 시비 533억원,

자체수입 65억원)이 투입됐다. 올해에는 1235억원, 2014년엔 3513억원, 2015년엔 2390억원 등 3년간 713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비 부담은 올해 550억원, 2014년 2271억원, 2015년 958억원으로, 향후 3년간 투입될 시비는 총 3779억원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국비지원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대량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어서 재원조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재정을 투입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U대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U대회 경기시설 가운데 개보수하기로 계획된 시설은 광주 54개소, 전남 18개소로, 총 72개소에 달하지만,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의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에산 반영

에 차질을 빚었다”며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내년에는 경기장 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현안의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는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곧바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 3월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갯속 북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지역이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안갯속 북한

“3·20 해킹은 북한 소행”

민관군 합동대응팀 “北, 8개월전부터 공격 준비”

지난달 20일 발생한 KBS·MBC·YTN 등 방송사와 연합뉴스·신한·제주은행·NH생명보험·NH손해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25일과 26일 추가로 발생한 추가 해킹 3건도 모두 북한의 연쇄공격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사이버테러의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북한 내부의 인터넷 주소가 나왔고 접속 흔적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사실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민·관·군 합동대응팀은 10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대응팀은 피해 업체의 감염 장비와 국내 공격경유자 등에서 수집한

악성코드 76종을 분석하고 수년간 국가정보원과 군에 축적된 북한의 대남 해킹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런 추정을 내렸다.

공격자는 최소한 8개월 이전부터 목표 기관 내부의 PC나 서버를 장악해 자료를 절취하고 전산망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침투·감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동대응팀은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해 6월 28일부터 최소한 6대의 북한 내부 PC가 1590회의 접속을 통해 금융기관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에 저장된 자료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백신 등 프로

그램의 중앙배포 서버를 통해 PC 파괴용 악성코드를 표적기관 내부의 전체 PC에 일괄 유포하거나 서버 저장자료 삭제 명령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팀은 지난달 20일 방송사·금융기관 전산망에 파괴뿐만 아니라 닷새 뒤 발생한 ‘날씨닷컴’ 사이트를 통한 무차별 악성코드 유포, 지난 달 26일의 14개 대북·보수단체 홈페이지 자료 삭제와 YTN 계열사 홈페이지 자료서버 파괴 등도 동일한 주체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15개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비행안전구역 1억2600만㎡... 너무 넓다”

재산권 보호위해 축소해야-허문수 시의원

허문수(민주·광산 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전역에 걸쳐 비행안전구역이 1억2699만㎡(3800만여평)에 달한다”며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축소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허 의원은 “광주지역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1966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개 구역 1억2699만㎡가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비행 활주도와 군부대 주변 시민들이 재

산상 손해를 입고 있으며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축소나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를 관철하고 있다”며 “경기도 포천시 667만㎡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비행안전구역 지정과 관련, 소관부처 방문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꾸준히 촉구했다”며 “그 결과 지난 2010년 어등산 주변 등 6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공무원노조 갈등 조짐

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된 도의원 비위 폭로 놓고 공방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의 인사청탁 등 잘못된 행동을 폭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명예훼손 글”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는 “진위 파악 후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의회와 노조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10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과 지난 8일 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도의원의 인사청탁, 이권 개입,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 처사, 술자리 폭력 등을 고발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네티즌이 올린 이 글들에는 의원들의 이름은 영문 이니셜로 처리됐다.

이 네티즌은 글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도를 넘어서는 인사 청탁을 해오고 있으며, 의원 모임에도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폭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의원연찬회 과정에서 발생한 의원 간 폭행 사건 등 과거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다.

글이 게재된 뒤 도청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회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글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일부 근거 있는 이야기”라며 거절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모든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글이기에 삭제할 것을 요청했고,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폐지를”

한국신문협회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남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매체에 표시광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규제

는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업자(광고주)를 제쳐두고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특히 “개정안은 행정편의를 위해 언론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크게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광고도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른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언론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경재 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재(71)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

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추진 행사에서 차량 확산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확산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 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경재(73) 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으로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연합뉴스

현대공인중개사

급한 매물 단시일 내 신속중개 -토지 건물

〈토지매매〉

- 소 재 지 : 광산구 산정동
- 면 적 : 14,172㎡ (구 4.287평)
- 용도지역 : 자연녹지.
- 지 목 : 잡종지
- 임지조건 : 대형차량진입 가능
- 허용용도 : 공장, 창고, 병원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차장) 고물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복지시설(노인, 사회 근로)

● 매매조건 : 면적(분할가능) 및 가격은 상담 후 결정

〈신속 상가 건물 임대〉

- 5층 건물 - 3면이 도로
- 9월 준공 예정
- 상무지구 구영 오피스텔과 국민은행 사이
- 권장 용도 : 학원, 병의원, 사무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자동차 전시장, 사무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편의점, 기타업종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정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림리브크스에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워터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95㎡(90평)

캐나다산 원목가공 목조건물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순환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6억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상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 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대로변 코너 소형 상가건물
주말동 상가 대지141㎡ 건물135㎡ 총 임차주입구 35㎡대로변 코너 주차편리 매2억4천만원(7센타 전시장 미용실등 다용도적합)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이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원룸 교환

두암동4층 원룸

대지 324㎡
건물 482㎡
14세대

매매가 5억1000만원
내·외부리모델링
용자없음

보증금 2억5100만원
월세160만원
월세전환식

보증금5600만원에
월세 455만원 가능

커피전문점 또는
타점포와교환가능

☎062-267-2006

가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매

- “담양” 무인텔
- 객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아정(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010-8289-85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리모델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급매매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현 토지가격 450만원 정도

15억

대형식당

교회,부패(가능)

개인사정으로 급매매 (월세도가능)

010-3701-4767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 10억~100억 이상 권별 대면형!!

= 상가 및 사무(매매) =

- 북구 원동동 최상급 사무나 호텔용 최고의 상권 최대 수익률 보장
- 북구 원동지구 바나나빌딩상가 87개동 대지8500평 2층1800평
- 동구 개동동 한성중학교 사무나 대지137평 건물109평8층건물
- 광안구 우동동 상가건물 대지 300평 건물 9500평
- 상무지구 중심지역의 상가건물 대지 172평 건물 1172평
- 사유 신라호텔빌딩부근 건물 (매매 후 12억2천만원 분할매매) 대지 850평 건물 2620평 상무지구 주상지인 상가건물 대면형대면형

= 토지매매 및 분양 =

- 광안구 광죽동 부근 대지4000평 대지1 평1000만원조성가
- 상무지구 원동동 최상급 사무나 호텔용 대지 4000평 건물 14000평
- 상무지구 대도면 최고 상가지역 대지850평 대지1 평1000만원
- 상무지구 우동동 부근 대지 9000평 대지1 평8000만원조성가
- 북구 광안동 대지4000평 대지1 평5000만원조성가
- 광안구 송정동 대지1,150평
- 고흥군 죽전면 대면형 대지1,984평 (각 타지역 토지 또한 대면형 대면형 9500평)
- 전남주주 후 내방하시면 친절상담형!!

☎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사들여 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